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첫 강의 주철환 JTBC 대PD



주철환 JTBC 대PD가 18일 광주 라미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2기' 첫 강의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행동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모험정신으로 무장하고 행동하라”

‘도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 프로그램을 만든 인기 프로듀서 주철환(60) JTBC 대PD는 “인생은 드라마(DRAMA)”라고 했다. 드라마에는 꿈(Dream)과 사랑(Romance), 액션(행동·Action), 수수께끼(Mystery), 모험(Adventure)이 있고, 이 같은 것들이 모인 것이 인생이라는 게 그만의 정이다.

고정관념 탈피 '발상의 전환' 강조

'인상·상상·매상' 리더스 덕목 제시

'원망 버리고 소망·희망 품어야'

고정관념이라는 벽에 들러붙어 버리면 별다른 결과물을 볼 수 없다. 여러분이 진짜 별이 되려면 장애물인 벽을 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가 밝힌 벽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상의 전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없는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명답’을 찾으라고 강조했다.

주 PD는 18일 광주 서구 라미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2기' 첫 강의에서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가치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실현하는 행동과 용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를 쓰고, 책을 펴내고, 노래를 부르는 PD답게 그는 이날 ‘벽을 넘어야 별이 된다’라는 주제를 노래와 자신만의 격언, 자신이 쓴 시를 인용해 강의했다. 짧게 말하는 그의 문장들은 때론 깊은 울림을 주었고, 고개를 끄덕이게도 했다.

“벽의 실체는 고정관념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면 ‘뭐 저러냐’라는 말을 하지만 그런 고정관념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나라도 있는 것이다. 이런 고

정관념이라는 벽에 들러붙어 버리면 별다른 결과물을 볼 수 없다. 여러분이 진짜 별이 되려면 장애물인 벽을 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는 ‘리더스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리더의 3상’을 CEO의 덕목으로 제시했다.

“인성이 인상을 만들고, 인성이 인생을 만듭니다. 리더는 친밀감이 들게 하는 ‘인상’, 보이지 않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상상(력)’, 실적을 낼 수 있는 ‘매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에서는 이기고, 인생에서는 비기십시오. CEO는 승부사이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목적을 강요해야만 하기 때문에 비기기만 하십시오.”

주 PD는 “인터넷 망처럼 우리 가슴에도 원망과 선망이 깔려 있는데, 이것들을 버리고 소망과 희망이라는 망을 깔아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직접 작사·작곡하고 앨범까지 발표한 ‘다 지나간다’를 회원들에게 들려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완승도 근심도 눈물도 웃음도 다 지나간다/ 사랑도 이별도 성년도 시샘도 다 지나간다/ 슬픔도 기쁨도 박수도 갈채도 햇살도 빗물도 바람도 구름도/ 안개도 이슬도 무지개마저 다/ 다 지나간다 떠나간다...”

“완승도 근심도 눈물도 웃음도 다 지나간다/ 사랑도 이별도 성년도 시샘도 다 지나간다/ 슬픔도 기쁨도 박수도 갈채도 햇살도 빗물도 바람도 구름도/ 안개도 이슬도 무지개마저 다/ 다 지나간다 떠나간다...”

광주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 개설된다

이르면 2020년 간선도로 운행...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

광주시내 간선도로 3곳에 광역급행버스(BRT)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제1순환도로(14.3km), 동운고가차도-보건대-철단지구와 장성군 경계(북문로·9.2km), 서방사거리-석곡치안센터(동문로·6.7km) 등 간선도로 3곳에 이르면 2020년 광역급행버스가 운행된다.

광역급행버스는 1km당 평균 인프라 구축비용이 30억원으로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과 비교할 때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수

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하철과 경전철은 1km당 각각 1000억원, 460억원 수준이다.

광역급행버스는 버스 전용차로를 주행하다가 신호등 앞 150m 지점에서 신호등을 녹색등으로 바꾸거나 녹색등을 연장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구현상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은 “이번에 변경하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므로 앞으로 시행계획이 나와야 정확한 BRT 노선 숫자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급행버스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BRT 체계 구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역급행버스 전용차로가 생기면 승용차 통행속도는 줄어든 수밖에 없어 자가용 이용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BRT는 별도의 차로가 필요한 만큼 도심에서는 현 도로 중 일부를 점용해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면서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BRT 도입 여부 및 노선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강진·합평·장성·진도 ‘결핵 청정지역’

전남 결핵검사 의뢰 쇄도

전남지역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연이어 결핵검사 의뢰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강진·합평·장성·진도 등 4개 군에서만 의뢰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 결핵 진성 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이 전남에서 ‘결핵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전남도는 19일 “완도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지난해 말 2명의 결핵 진성 환자가 발생

해 접촉자 50여 명에 대해 1·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명이 잠복결핵 환자로 드러나 완도보건소의료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잠복결핵 환자는 전염성도 없고 따라서 치료 필요성도 낮지만 모두 노인들이어서 서둘러 투약을 지시, 진성 환자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지난해 전남지역 18개 시·군 요양원, 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무려 1136건의 결핵검사 의뢰가 쏟아져 이 가운데 497명(48.3%)이 이 같은 잠복결핵 환자로 분석됐다.

다만 강진 등 4개 군에서만 결핵 검사 의뢰가 없었다.

지난해 말 기준 결핵환자는 2548명으로 지난 2012년 2443명보다 164명(6.7%), 2011년(2279명)보다는 269명(10.56%)이 늘었다. 전국적으로 결핵환자가 줄어들고 있으나 전남지역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핵환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노인·중·고등학생들의 면역력 약화,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관리 취약 등이 꼽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완도의 경우 잠복결핵 양성자의 규모가 커서 긴장하고 있다”며 “최대한 확산을 막기 위해 서둘러 격리조치 및 6개월 투약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학생 폐렴 발생률 전국서 가장 높아

광주 학생의 폐렴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년 학교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참여한 전국 409개 학교(초등학교 242개, 중학교 104개, 고등학교 60개, 특수학교 3개)를 대상으로 학생에게 발생하기 쉬운 7개 질병의 발생 추이와 특성을 파악했다.

감시대상 감염병은 감기·인플루엔자, 수두, 뇌막염, 유행성 이하선염, 결막염, 폐렴, 홍역 등이다.

분석결과, 지난해 전체 학생들에게 가장 흔한 감염병은 감기·인플루엔자로 전체 학생 1000명당 39.81명꼴이었다. 그다음으로 수두(4.59명), 유행성 이하선염(3.69명), 결막염(3.69명), 뇌막염(0.34명), 폐렴(0.33명) 등의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감기·인플루엔자 및 수두는 초등학교에서, 결막염은 중학교에서, 유행성 이하선염은 고등학교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월별·계절별로는 감기·인플루엔자는 3월, 수두와 폐렴은 5월, 뇌막염은 6월, 유행성 이하선염은 7월, 결막염은 9월에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감기·인플루엔자는 서울(85.96명)에서, 수두는 울산(14.77명)에서, 뇌막염은 부산(1.28명)에서, 유행성 이하선염은 대전(43.29명)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결막염은 울산(9.48명)에서, 폐렴은 광주(0.76명)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홍역은 2013년도 학교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인구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학생의 건강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위생관리, 손씻기, 기침 예절을 준수하도록 지도해달라”고 학교 당국에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문화도시추진단장에 김성일씨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에 김성일(52·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정책관을 임명했다.

김 신임 단장은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미 워리데에서 문화정책 석사,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영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 관광레저기획관, 정책기획관을 역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노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jn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 광주새마을금고를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 361-3515 양 동 지 점: 362-6164 / 전화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번길 3